

KIA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에 오르다

이범호 이어 안치홍까지 부상...타선 공백 불가피
최원준·서동욱 등 백업요원들 주전 공백 메워야



KIA 타이거즈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KIA 주축 타자 2명이 투수의 공에 맞아서 전열에서 이탈했다. 주전 2루수 안치홍이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서 5회말 타석에서 상대 선발 타일러 윌슨의 공에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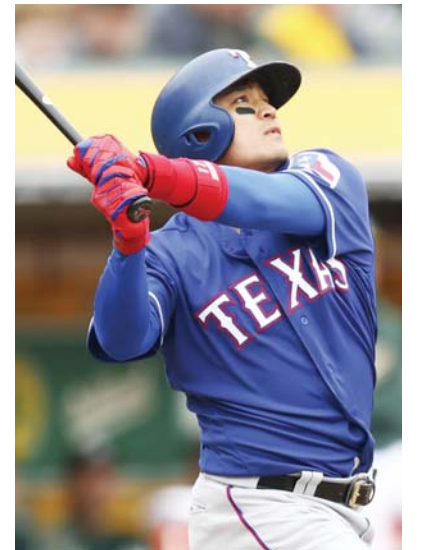
맞았다. 병원 검진 결과 왼손 검지 중절골 미세 골절 판정을 받았다. 일단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경과를 지켜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6일 넥센 히어로즈전에선 이범호가 최원준의 공에 맞고 오른손 중수골 미세골절로 빠진데

이어 안치홍까지 빠지게돼 KIA로선 타선 공백을 맞이하 수백에 없게 됐다. KIA의 6.7번 타수를 책임지며 팀의 공격력을 폭발시켰던 둘이다. 특히 안치홍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KIA 타선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이던 타자였다. 안치홍은 부상 전까지 타율 3할7푼3리에 6홈런, 18

타점을 기록했다. 타율은 최형우(0.382)에 이어 팀내 2위, 홈런과 타점은 1위였다. KIA는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타선이 지난해처럼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고 있다. 마운드에서도 선발과 불펜 모두 불안한 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축 타자 2명이 사구로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제 백업요원들이 주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동안 이범호가 빠진 자리엔 최원준이 나서고 있었다. 이렇게 초반 좋은 타격을 보였던 최원준은 최근 일주일 동안 14타수 무안타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안치홍을 대신해서 나설 수 있는 2루수는 황윤호와 서동욱 등이 있다. 서동욱은 베테랑 야수다. 내외야를 가리지 않고 나설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지난해에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휴식을 취할 때 대신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쳤다. 올시즌엔타율 2할15타수 3안타에 그치고 있다. 황윤호는 안치홍이 목담증세로 빠졌을 때 2루수로 출전했다. 올시즌 타율 2할7푼3리(11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이다. KIA는 전체적인 타격 부진으로 타선이 자주 비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들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KIA의 백업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살아난 추신수, 2경기 연속 대표

시즌 첫 고의4구까지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대표를 작렬하며 부활을 알렸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회초 선제 솔로포를 때려냈다. 0-0으로 팽팽히 맞선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상대 선발 제이크 파리아의 시속 90.2마일(약 145km)짜리 직구를 통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때려냈다. 시즌 5호 홈런. 지난 10일 LA 에인절스전부터 16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까지 27타수 1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전날 탬파베이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타격감 회복 기미를 보였다. 그러자 상대 배터리도 잔뜩 경계했다. 텍사스는 1-0으로 앞서가던 5회 레나토 누네스의 2루타로 2사 2루의 찬스를 잡았고, 추신수 타석이 돌아왔다. 그러자 탬파베이 배터리는 추신수를 고의4구로 거르고 이시아 카니어 팔레파와 승부를 택했다. 팔레파가 2루수 뜬공으로 물러

나면서 텍사스는 추가점을 내지 못했다. 추신수의 올 시즌 1호, 개인 통산 38호 고의4구다. 추신수는 이외에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1회초 첫 타석에서는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갔고 선두타자로 나선 8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19에서 0.224(7타수 1안타)로 올랐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선제 솔로포로 잡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4로 졌다. 텍사스는 13번째(7승)를 당해 메이저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다저스 베테랑' 리치 힐, 10일짜리 부상자 명단...류현진 등판일 조정?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베테랑 좌완 투수 리치 힐(38)이 부상자명단(DL)에 오르면서 류현진(31)의 등판 일정이 또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을 비롯한 외신은 19일(한국시간) "다저스 구단이 왼쪽 가운뎃손가락 염종 증세가 있는 힐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했다. 대신 좌완 불펜 투수 애덤 리베라토어를 콜업했다"고 보도했다. 힐은 지난 1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0닝 7피안타(2홈런) 7실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당시 경기에서 손톱이 깨지는 부상을 당한 힐은 전날로 예정된 불펜 투구를 하지 못했다. 다저스는 힐의 부상자명단 등재 날짜를 18일로 소급 적용했다. 힐은 이르면 28일이나 복귀가 가능하다. 힐이 부상자명단에 오르면서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당초 힐은 21일 시작되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3연전 첫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다. MLB닷컴과 다저블루는 커쇼가 21일에 등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지난 16일 애리조나전에 선발 등판해 70닝 1실점으로 호투한 커쇼는 20일에 휴식일이어서 로테이션대로 나올 휴식을 취하고 선발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이어 류현진과 알렉스 우드가 나흘을 쉬고 22, 23일 워싱턴전에 선



발로 나설 수 있다. 류현진이 22일 등판하면 워싱턴의 우안 에이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 15승4패 평균자책점 2.52의 뛰어난 성적을 거둔 스트라스버그는 올해 4경기에서 26%이닝을 소화하며 2승1패 평균자책점 3.08을 기록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일 애리조나전에서 34%이닝 5피안타 2탈삼진 5볼넷 3실점으로 부진했던 류현진은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60닝 1피안타 8탈삼진 1볼넷 무실점, 1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60닝 3피안타(1홈런) 9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상승세를 탔다. 힐이 26일 복귀해도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걸러야 하고 다저스는 29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더블헤더 경기가 예정돼 있어 대체 선발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



웃지 못한 MVP 화이트
"키 통과 못하면 다른 나라 리그로 가야해"

프로농구 서울 SK의 외국인선수 테리코 화이트가 2017~2018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SK는 1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진 원주 DB와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6차전에서 80-77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챔피언결정전 6경기에서 평균 3점수 2.7개를 포함해 25점을 몰아쳤다. 화이트는 기차안 투포 총 95표 중 64표를 받았다. 그는 "SK가 18년 만에 우승해서 기쁘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반성했는데 이번에 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선수가 챔피언결정전에서 MVP를 차지한 건 2002~2003시즌 데이비드 잭슨(원주 TG·현 DB)이 마지막이다. 화이트가 15시즌 만이다. 화이트는 "15년 만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일이다. 감회가 새롭다. MVP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팀 우승만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화이트는 환하게 웃을 수 없었다. KBL이 2018~2019시즌부터 외국인선수 제도를 자유계약으로 변경한 가운데 장신은 200cm 이하, 단신은 186cm 이하로 규정했다. 화이트의 프로필 신장은 192.5cm다. 플레이 스타일상 장신으로 뛰기는 어렵다. 재추적을 한다고 해도 186cm 이하로 내려가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화이트는 "가기 전에 신장을 한 번 재보겠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른 리그에서 뛰지 않을까 싶다"며 아쉬워했다. 득점왕 데이비드 사이먼에 이어 MVP 화이트까지 강제 퇴출되는 모양새다. 뉴스

김주성, 마지막 시즌 우승반지 꿈 못 이루고 떠나다

2002년 프로데뷔 16시즌 원팀 '프랜차이즈 스타'

원주 DB의 '심장' 김주성(39·205cm)이 프로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우승으로 장식하겠다는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코트를 떠났다. 그라운드 정규리그 우승, 플레이오프 준우승을 맛보고 은퇴하게 됐다. DB는 1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6차전에서 80-77로 졌다. 1, 2차전을 내리 이긴 뒤 3~6차전을 내리 진 DB는 통합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SK에 우승의 영광을 내줬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김주성은 우승 반지를 끼고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주성은 프로농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부산 동아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0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원주 TG삼보(현 DB) 지명을 받은 김주성은 올 시즌까지 16시즌 동안 DB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로 '심장'이라 불릴 만하다. 통산 742경기에 출전한 김주성은 평균 13.9득점 6리바운드 2.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정규리그 통산 볼록슛 1위(1037개), 득점 2위(1만888점), 리바운드 2위(4425개)에 올랐다. 가장 돋보이는 기록은 볼록슛이다. 프로농구 역사상 통산 볼록슛 1000개를 돌파한 것은 김주성이 유일하다. 2위는 찰스 로드로 561개다. 은퇴한 서장훈이 463개로 3위다. 김주성은 정규리그에서 5차례 우승을 맛봤고 챔피언결정전에서 세 번이나 우승 반지를 걸었다. 김주성은 신인이던 2002~2003시즌 TG삼보를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4~2006시즌과 2007~2008시즌 DB 우승의 중심에도 김주성이 있었다. 2002~2008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김주성은 2003~2004시즌, 2007~2008시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를 거머쥐었다. 2004~2005시즌과 2007~2008시즌

에는 챔피언결정전 MVP까지 품에 안았다. 특히 2007~2008시즌에는 올스타전 MVP까지 쓸어들면서 역대 최초로 MVP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프로에서 내내 주연만 맡았던 김주성은 은퇴를 결심한 이번 시즌 조연을 자청했다. 최근 3점슛을 던지는 빅맨으로 변신한 김주성은 주로 4쿼터에 투입돼 한 방을 노리는 해커사 역할을 맡았다. 올 시즌 54경기에서 평균 12분 43초를 뛴 김주성은 평균 5.3득점 2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6강도 힘들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DB가 볼록을 일으키며 6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설 수 있었던 데는 김주성의 힘이 컸다. 빅맨 후배들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젊은 선수들 위주로 꾸려진 DB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식스맨상은 김주성의 차지였다. 정규리그 우승을 맞본 김주성은 그의 마지막을 우승 반지로 장식하길 간절히 바랐다. 정규리그 1위로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DB는 안양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며 우승에 청신호를 쏘았다. 김주성은 8번째 챔피언결정전 무대에 서게 됐다. 추승균 전주 KCC 감독과 같은 최다 기록이다. 앞서 7차례 챔피언결정전에서 김주성이 우승을 맞본 것은 세 번 뿐. 가장 최근 챔피언결정전에 나선 2010~2011시즌, 2011~2012시즌, 2014~2015시즌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던 데다 마지막이기에 김주성에게 우승은 간절했다. DB는 챔피언결정전에서 1, 2차전을 내리 승리했다. 김주성의 꿈도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3차전에서 대역전패를 당한 DB는 4차전에서 판정 논란 속에 승리를 내주면서 흐름을 내줬다. DB는 5, 6차전을 내리 패배하고 말았다. 결국 김주성의 8번째이자 마지막 챔피언결정전은 준우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오타니, 손가락 물집 '이상무'

예정대로 선발 가능할 듯

손가락에 물집이 잡힌 가운데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과 ESPN 등에 따르면 마이크 소시아 에인절스 감독은 19일(한국시간) "이번 주 내내 오타니의 손가락 물집 상태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며 "오타니는 예전에도 겪은 일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

서 뛰던 2016년 손가락 물집 탓에 두 달 정도 투수로 나서지 않았지만, 오타니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타니는 "2016년의 물집처럼 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수와 타자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볼풍을 일으켰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오타니는 투수로 3경기에 선발 등판해 15이닝을 던지면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타자로는 8경기에 출전해 타율 0.367(30타수 11안타) 3홈런 11타점에 출루율 0.424, 장타율 0.767의 성적을 거뒀다. 뉴스